

(인도자용)

삶으로 말하기 4

“마음을 빌려주기”

마음열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 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당하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에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낫을 빌려주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이때에 항의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빌려주어야 합니까?." 그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 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건 증오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공홀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홀과 관대함은 타인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반대로 남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사람,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요, 인내입니다. 공홀은 복수가 아닙니다. 증오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공홀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공홀”과 “복수”, “증오” 중 어떤 것을 선택했을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나눔

1.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최근에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 나 자신이 힘들거나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요?

☞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어려웠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누군가의 실수나 약점을 보았을 때, 긍휼 대신 판단하거나 비난한 경험이 있나요?

☞ 주변에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나요?

☞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나요?

2. 성경은 긍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래 성경을 읽고 빈칸을 채우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에베소서 2:1-7

1.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사람들이었습니다.
2.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3.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좇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5.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7.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 주 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이전모습(1-3절)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존재 땅 위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던 존재 죄된 본성을 좇아 행하는 존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르던 존재
그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반응(4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5-7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4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용과 결단

금훔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금훔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

금훔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신이 다가갈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있어야 할 그 장소는 어디인가?

주변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나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